

# 야권 후보단일화 줄다리기가 시작

## 안 “시기상조” 거리두기... 문 “서두를 필요없다” 맞대응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인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속에 각자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단일화 주도권 선점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우선 안 후보 측은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거듭 압박했다. 안 후보 측근 그룹인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 “후보 단일화 조건과 입당 조건이 동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단일화된 민주당 입당이든 간

에 안 후보가 19일 출마 회견에서 밝힌대로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후보 단일화와 관련, “이제 공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얼마나 개혁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못 박았다.

안 후보의 정연순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목적이 될 수 없다. 혁신과 국민의 공감을 얻느냐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문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끌려가기 보다는 쇄신과 변화를 토대로 야권 후보로서의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쇄신은 애초부터 우리의 몫이었다”며 “우리의 문제 의식은 ‘안철수 현상’에서 나타난 정치 현실을 깊이 반성하고 수용해내자는 것이지, 안 후보의 공을 넘겨받아 쇄신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조기 단일화도 협상을 통한 단일화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와 다른 아름다운 경쟁을 하면 된다. 경쟁시간이 길면 갈수록 우리가 우위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 19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권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0.2%p 차의 접전을 보여왔

로 치열한 경쟁 구도를 예고했다.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안 후보는 야권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전일 대비 6.5%p 상승한 38.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전일 대비 5.9%p 떨어진 39.0%를 기록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를 벌였다.

문 후보는 양자대결시 48.1%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42.3%)를 5.8%p 차로 제쳤으며 안 후보 역시 양자대결에서 48.3%의 지지율을 기록, 박 후보(42.5%)를 5.8%p 차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방식 전화조사(가구전화 RDD 80% + 휴대전화 RDD 20%)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2.5%p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재인 “안·박 이길 자신있다”

## 후보 확정후 첫 의총 참석... 경선 경쟁자 다음주 초 회동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는 20일 ‘당의 쇄신과 단결’을 내걸면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 대비하는 행보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조찬회의를 갖고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다. 후보 확정 후 정책 행보를 이어온 터라 사실상 대면식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선 과정의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어느 때보다 간결한 목소리로 당의 화합을 당부했다.

그는 지도부 조찬회의에서 “기존

과는 달라진, 아주 개혁적이고 넓은 선대위를 구성해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꼭 이루겠다”며 “선대위는 기존 여의도 관행과는 다를 것”이라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의총에서 “올 대선에서 안철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모두를 이길 자신이 있다”며 “자신이 없었다면 애당초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이 가진 브랜드와 당 저력이 함께 결합하는 조합은 가장 경쟁력 있는 조합”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진작에 대

세론이 깨져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안 후보도 협상을 통한 단일화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그저 담담하게 경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지자”, “스스로 분열만 되지 않으면 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체가 다 녹아들고 화합하는 선대위를 만든다는 부분은 눈곱만큼도 의심치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다음주 초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와 회동해 대선 승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0일 용인시 처인구 MBC드라마마을 방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찾기의 일환으로 외주 드라마 '아랑사또전' 보조 출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출마 환영 '철수처럼' 광주·전남본부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자생 단체 '함께 사는 세상 철수처럼' 광주·전남본부는 20일 “안철수 원장의 18대 대통령 출마를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하는 복지·정의·평화의 가치가 실현되고, 정권교체와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기존 정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미래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새로운 경제모델’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안 원장에게 촉구했다.

## 위기의 박근혜

### 과거사 문제·측근비리 '발목' 지지율 급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총체적 위기에 빠진 모습이다. 봉하마을 방문으로 시작한 국민대통합 행보가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측근들의 잇단 비리 파문으로 그의 정치체신 의지가 빛 바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이전에 대세론을 확고히 하려 했던 박 후보 측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 원인 중심에는 박근혜 후보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박 후보가 ‘불통 후보’라는 불명소리가 터져나온다. 언론에서 연일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 문제

를 비판하고 있지만 캠프 측은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나”며 오히려 항변한다. 박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불통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각종 연찬회를 비롯해 의원 및 당원위원장들과의 접촉 횟수를 늘려왔지만 단순한 만남이지 소통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홍사덕·송영선 전 의원의 비리 추문이 갈수록 전방 박 후보는 정치쇄신특위 회의에 전격 참석했지만, 그가 내놓은 메시지에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 절박한 결연한 정치체신의 지가 묻어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캠프구성 착수 선거총괄 박선숙 비서실장 조광희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에 민주당 당 출신의 박선숙(사진)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선거캠프 구성에 착수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을 탈당하며 전·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 박 전 의원의 공식 직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거총괄본부장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 후보는 비서실장에 조광희 변호사를 임명했고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정연순 변호사를 공동대변인, 이숙현 안팎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은 부대변인으로 인선했다. 정치 컨설턴트인 김문재 변호사의 캠프 합류도 확정됐다.

안 원장 측은 선거 실무를 맡는 인사들이 일정 부분 짜인 만큼 정책을 책임질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선 후보 캠프 '선대위 구성' 지상과제

#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 박 '대통합' 문 '용광로' 안 '변화형' 메시지 담아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선 초반 민심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추측 명절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떨어진 지상 과제다.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후보가 추구하는 정권의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추측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대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대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박 후보가 역사인식 논란, 측근비리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린 가운데 전열을 조속히 정비해 지금의 수세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국민 통합과 변화를 상징할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각 사회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 대선 정국의 첫 승부처인 추석 연

휴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선대위 구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내 화합과 쇄신, 새로운 비전을 담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 측에서는 선대위에 기존의 당내 인사들 외에도 국민의 열망을 담을 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책적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선대위 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는 20일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 “모든 계파를 다 녹여내는 용광로같은 선대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선대위, 개혁적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의도 관행과는 다른 선대위를 구성해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꼭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도산동(교회) 대772㎡, 21786㎡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5억9천	순천조례 (상가, 주차빌딩) 대2136㎡, 215647㎡ 감정가 43억천 최저가 15억4천	영암삼호(근린시설) 대777㎡, 211152㎡ 감정가 9억천 최저가 4억천	월곡동(병원, 헬스) 대1570㎡, 24742㎡ 감정가 76억8천 최저가 27억5천	치평동(일반음식점) 대98㎡, 21568㎡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6억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전주우이동(나이트) 대1794㎡, 233968㎡ 감정가 47억4천 최저가 19억4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p>☞ 금동(목욕탕) ☞</p> <p>▷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p>	<p>☞ 광주 쌍암동(유형시설) ☞</p> <p>▷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협의후결정)</p>	<p>☞ 담양금성(공장) ☞</p> <p>▷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 1600만 ▷매매가 5억(협의후결정)</p>
<p>☞ 용봉동(하이스포츠) ☞</p> <p>▷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사설비발도)</p>	<p>☞ 울산주(숫가마) ☞</p> <p>▷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감정가 18억2천 ▷매매가 8억(협의후결정)</p>	<p>☞ 전북완주 봉동 공장 ☞</p> <p>▷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p>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삭이사/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백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안(지하)호프, 분식60평, 원룸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3.NPL 매입/투자비용 전수

4.단독/공동투자 가능

5.교육/임대비등 회비 550만원

자본주 모심 / 10억이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